

북미협상 재개될까... 美비건 “北과 협상 준비돼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북한 관련한 진전 만드는데 집중”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마친 후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미협상전략을 논의한 가운데, 외교계와 정계 일각에서는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이 본부장과의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

가(러시아) 대사직을 맡기 위해 현지 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소문을 해명하고 싶다”며 “러시아에서 외교업무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비건 대표는 계속해서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 듣

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정상간 6·30 판문점 회동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작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 재개 임무를 맡겼다. 나는 이 중요한 임무에 완전히 전념

해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와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 나눴다.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시점에 비건 대표가 시의적절하게 방한했다”며 “우리 둘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미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서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 대화의 전기가 계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비건 대표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전날 일본을 거쳐 방한했다.

나아가 한미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북미실무협상 조기 재개 및 협상 전략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잇따라 쏜 발사체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는 게 외교계 일각의 전언이다.

한미 수석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북미 실무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을 만난 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22일에는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1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비건 대표의 방한 시점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시점이란 측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연합훈련 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 등을 살펴볼 때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은 유력하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새 학기 시작한 초등학생들

전국 초등학교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개학을 한 가운데 21일 서울 한강대로 용산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마친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시원스쿨 KS-PBI 온라인영어회화학습 최고점 (프리미엄브랜드지수)

4년 연속 1위 ... 교육 트렌드 이끌어

시원스쿨은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인증 수여식’에서 온라인영어회화학습 부문에 4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 평가 제도다. 이번 조사에서 브랜드의 인지, 이미지, 편익, 마켓 리더십, 애호도, 사회적책임 등 6개 측정모델 평가 결과 시원스쿨은 온라인영어회화학습 부문 종합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시원스쿨은 2006년 기초영어회화 강의 콘텐츠를 시작으로, 자체 개발한 단



시원스쿨이 ‘2019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인증 수여식’에서 온라인영어회화학습 부문에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시원스쿨

어연결법과 연령별 맞춤 학습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어 동영상 강의와 태블릿 PC의 결합으로 온 가족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패밀리랩을 선보이는 등 교육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용수 기자 hys@

웅진씽크빅, ‘2019 창의수학 경시대회’ 연다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은 오는 10월 19일 전국 웅진씽크빅 회원을 대상으로 ‘2019 창의수학 경시대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6회째를 맞이한 웅진씽크빅 창의수학 경시대회는 웅진씽크빅 회원들의 학습성

취도 확인과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2014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약 7만 여명의 학생들이 응시했으며, 매년 전국 각 지역 웅진씽크빅 사업장 및 대외 기관 내 특설 시험장을 갖춰 전국 단위 규모의 경시대회로 자리매김했다. /한용수 기자

건국대 공과대, 공학교육 혁신 나선다

학과중심 체제서 대단위 학부제로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교육 강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이 기존 소규모 학과중심 체제를 대단위 학부제로 개편하고 공학교육 혁신에 나선다.

21일 건국대에 따르면, 공과대학이 최근 학부제로 전환한 전기전자공학부, 화학공학부에 이어 2020학년도부터 사회환경공학부(기존 사회환경공학부, 기술융합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기계공학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부(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를 정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이들 5개 대단위 학부와 생물공학과, 산업공학과, 신산업융합학과(특성화고졸재직자), K뷰티산업융합학과(특성화고졸재직자) 4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건국대 공과대학은 대규모 학부제 신설과 함께 ‘융합-모듈 클러스터’ 커리큘럼을 도입해 교육 내용도 혁신한다. 예컨대, 사회환경공학부의 경우 인프라 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를 통합해 5개의 전공트랙을 편성하고, 이들의 조합이 하나의 직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국대 전경 /건국대학교

학부 단위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기존 강의 중심의 교육 개념을 뛰어넘어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년 8학기 틀을 바꿔 학생들이 자기 주도하에 학기와 커리큘럼을 입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연 학기제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현장실습 2+1학기제’, ‘채용연계성 3+1학년제’ 등 공대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부연구생 프로그램’, ‘4+1 학·석사 통합과정’ 등 연구인턴십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연구 활동도 지원한다.

교수법 또한 학습 동영상 등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시간에는 토론, 실습 등

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플립드(Flipped)러닝 등 토론식 강의를 확대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시작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공과대학 모든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설계와 전공분야 활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학생들에게 인기인 개방형 학습공간 ‘K-큐브’를 비롯해 토론형 첨단 강의실, 대형 전산실습실 등을 갖추고,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와 개방형 제작실습 환경인 ‘테크 공작소’ 등도 지속 확대기로 했다.

김선주 건국대 공과대학장은 “학생들은 다양한 모듈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며 “자기주도적 진로 개척을 가능케 하는 ‘융합-모듈 클러스터’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융합적 사고를 배양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취업만 되기를” 구직자 5명 중 2명 목표기업 없다

구직자 3612명 대상 설문조사
“명확한 목표 잡고 구직 임해야”

올해 하반기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 5명 중 2명은 취업 목표 기업을 정하지 않고 어디든 취업만 되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사람이인 구직자 3612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취업을 원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7.6%는 ‘취업만 되면 어디든 상관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중소기업’(20.9%), ‘중견기업’

(16.1%), ‘공기업/공공기관’(12.8%), ‘대기업’(9.2%), ‘외국계기업’(3.4%) 순이었다.

‘취업만 되면 어디든 상관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40.4%)이 남성(32.5%)보다 많았다.

기업 형태가 어디든 상관없다고 답변 이유(복수응답)로는 ‘빨리 취업을 해야 해서’(47%)가 가장 많았고, ‘길어지는 구직활동에 지쳐서’(35.7%), ‘남들보다 스펙 등 강점이 부족해서’(20.9%), ‘목표 기업을 잡아도 들어가기 힘들어서’(15.5%), ‘기업 형태보다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해서’(13.4%) 등이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취업이 어려워 구체적인 목표 기업이나 직무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입사에만 집중하는 구직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접근은 ‘묻지마 지원’이나 조기 퇴사로 이어져 다시 구직자로 돌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명확한 목표를 잡고 구직에 임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직장생활과 성공적인 커리어 관리 등 진정한 취업 성공을 이루는 첩경”이라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